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190 호

2018 년 10 월 1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UNGC OPEN DAY - 〈식음료•유통•소비재 산업〉 안내 (10/5)
2. [제 19 회 세계지식포럼] UNGC Special Session: Blockchain for Social Impact (10/10)
3. 제 4 회 유엔글로벌콤팩트 Youth CSR Conference 개최 안내 (11/3)
4. 유엔글로벌콤팩트 싱가포르협회 10 주년 기념 기업 방문단 초청 (11/19)
5. 인권경영 국제 연수(제네바·파리) 및 인권경영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본부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옹호하는 10 명의 비즈니스 리더를 선정
2. 비즈니스 리더들, 유엔사무총장과 함께 평화, 인권, 2030 아젠다의 발전에 대해 논의
3. 유엔글로벌콤팩트,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괄적인 사회와 기업을 연계
4. 유엔글로벌콤팩트 발간물 소개
 - 1) UN Global Compact Progress Report 2018
 - 2) Building Peace and Prosperity: What Business Can Do

■ SDGs 소식

1. [Goal 7, 8, 11] 국내 SDGs 우수이행 사례 – LG전자
2. [SDGs 시장기회] 난민을 위한 즉각적인 피난처 제공
3. [SDGs 솔루션] 난민을 위한 내구성 있는 임시 주택

■ UNGC 회원 뉴스

1. KEB하나은행, 사회적 약자 위한 금융 지원... 책임 경영 앞장
2. 우리 銀, 대구 신용보증재단과 중기 금융지원 협약 체결
3. 두산, 사람에 대한 헌신과 지역사회 기여로 '더불어 사는 삶' 실천

■ CSR 뉴스

1. 리베이트, '횡령' 가능성 내포..."전사적 CP, 업계 대세"
2. 삼일회계법인 "사회적 활동 우수하면 회계투명성도 높아"
3. "중견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위해 CSR 강화해야"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18년 연회비 납부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UNGC OPEN DAY - 〈식음료·유통·소비재 산업〉 안내 (10/5)



UNGC OPEN DAY - 식음료 · 유통 · 소비재 부문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세계 최대 글로벌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의 한국 네트워크입니다.
UNGC 한국협회에서 국내외 식음료·유통·소비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담당자들을 모시고,
글로벌 지속가능성 동향 및 UNGC 주요사업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현업 실무자들의 다양한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의 글로벌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유엔, 정부,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에서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SDGs 달성을 위해 기업도 핵심사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사회투자,
사회공헌, 민관협력 등에서 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탐색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KPMG가 공동 발간하고,
UNGC 한국협회가 추가 연구·조사한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식음료·소비재편>과
SDGs Compass 등 연구 발간 자료가 제공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8. 10. 5 (금) 오후 4시 ~ 6시

장소: UNGC 한국협회 사무처 (시청역)

대상: 식음료·유통·소비재 산업군 기업 실무자 및 이해관계자 (선착순 10명)

시 간	프 로 그 램
16:00 - 16:30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동향
16:30 - 17:0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기업 대응 전략 -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식음료·소비재편> 소개 - 목표별 이행 사례 및 우수 기업 사례
17:00 - 18:00	UNGC 한국협회 활동 소개 및 참가 기업 관심 이슈 공유

문의 | 소완 연구원

T. 02-749-2149 /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초청장 다운받기]

[참가신청 바로가기]

2. [제 19 회 세계지식포럼] UNGC Special Session: Blockchain for Social Impact (10/10)



최근 블록체인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비즈니스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와 자산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활용 방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소셜 임팩트에 대해서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회사들은 이미 회사운영에 블록 체인 기술을 통합하고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함께하는 본 세션은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공급망 투명성, 공유경제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나가는
기업의 선도적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 사 개 요 일 시: 2018년 10월 10일 {수} 오후 4:40 - 5:40{60'}
장 소: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
주 최: 매일경제신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참 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사 {선착순 30명, 참가비 무료}

* 본 초청장은 해당 세션에만 적용됩니다. {오찬 및 이외 세션 제외}

프 로 그 램	시 간	프 로 그 램
	04:40 - 04:45 (5')	환영사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04:45 - 05:10 (25')	발표 다니엘 존스, CEO, BEXT360
	05:10 - 05:25 (15')	발표 이원훈, CEO, Bluewhale
	05:25 - 05:40 (15')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이정훈 교수, 연세대학교

연 사 소 개



다니엘 존스는 개발도상국 내 주요 생산과정을 간소화 시켜주는 기술을 개발하는 벡스트 360의 CEO다. 존스 CEO는 중국, 공고민주공화국, 인도를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20년 가까이 머무르며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공고민주공화국 최초의 미국 국적 회사를 설립해 공고에서 생산된 광물을 도드-프랭크법에 따른 공정한 과정을 거쳐 수출했다. 또한 공고민주공화국 최초의 민영 항구 시설 건설을 이끌었다. 존스 CEO는 과거 미국 국방정보본부(DIA)에서 프로그램 설계자로 근무하며 국가기밀 정보망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체계인 '합동 범세계 정보통신시스템(JWICS)'을 개발했다. 코넬대 경영과학 및 산업공학 학사 졸업 후, 시카고대布斯경영대학원에서 국제경영, 재무, 경영전략을 전공하며 MBA를 취득했다. 그는 과거 시카고대 부교수로 재임하며 기술이 기업 경영에 주는 영향을 연구했다.



이원호대표는 블루웰 재단의 CEO이며 스탠포드에서 AI를 공부했다. 여러 번 창업을 경험했으며, 창작자를 위한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인 Verlocal을 창업하였다. 5년간의 운영 후, 프리랜서 시 장에 세계적으로 급진적인 변화가 있으나 기존 시스템에서는 대부분의 참여자가 고용안전과 혜택의 부재, 너무 높은 중개비, 마케팅 능력과 디지털화 노하우의 부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 이원호 대표의 목표는 개개인이 일인기업의 오너가 되어 각자의 가능성을 최대로 펼치는 것이며, 이것이 블루웰 프로젝트의 모티브이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Tel. 02-749-2149/21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초청장 다운로드]

[참가신청 바로가기]

3. 제 4 회 유엔글로벌콤팩트 Youth CSR Conference 개최 안내 (11/3)

2018
UN Global Compact
YOUTH
CSR
CONFERENCE
2018.11.3 (Sat) 09:30-18:00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SDGs Generation: Youth Signal for Sustainable Future"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와 기업 | 사회적 가치 창출과 비즈니스 기회
기술혁신과 지속가능성 | 기업의 기후행동 전략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입니다.

2000년 7월 발족 이래, 전 세계 161개국 13,000여개 회원(9,700여개 기업회원 포함)이 참여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활동에서 10대 원칙을 주류화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포괄적인 유엔의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201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는 Youth CSR 컨퍼런스(2012년 세종대, 2014년 경희대, 2016년 연세대)는 국내 최대의 대학생 CSR 참여 플랫폼으로, 본 컨퍼런스를 통해 주요 CSR 이슈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논의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3일(토)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SDGs Generation: Youth Signal for Sustainable Future"의 주제로 제4회 YouthCSR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사 개요 일 시: 2018년 11월 3일 (토) 09:30~18:00

장 소: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프 로 그 램

시간	프로그램
09:00 - 09:30 30'	등록
09:30 - 09:35 5'	개회사 -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09:35 - 09:38 3'	환영사 - 연세대학교 부총장
09:38 - 09:45 7'	축사(영상 메시지) -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09:45 - 10:15 30'	특별 강연 1 - 강경화 외교부 장관 (TBC)
10:15 - 10:20 5'	포토타임
10:20 - 12:00 100'	CEO와의 대화
12:00 - 13:30 90'	점심 및 분과세션장 (경영관) 이동
13:30 - 15:10 100'	분과세션 1 -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와 기업
	분과세션 2 - 기술혁신과 지속가능성
	분과세션 3 - 사회적 가치 창출과 비즈니스 기회
	분과세션 4 - 기업의 기후행동 전략
15:10 - 15:30 20'	휴식 (경영관 → 백주년기념관 이동)
15:30 - 16:00 30'	특별 강연 2
16:00 - 16:50 50'	CSR 전략제안 공모전 대상, 최우수상 발표 / 심사평 및 시상식
16:50 - 17:00 10'	제4회 Y-CSR 컨퍼런스 결과 매니페스토 채택 및 낭독
17:00 - 17:30 30'	특별 공연 및 경품 추첨
17:30	폐회

02-749-2149/50 | y-csr@globalcompact.kr | www.unglobalcompact.kr | www.facebook.com/UNGCK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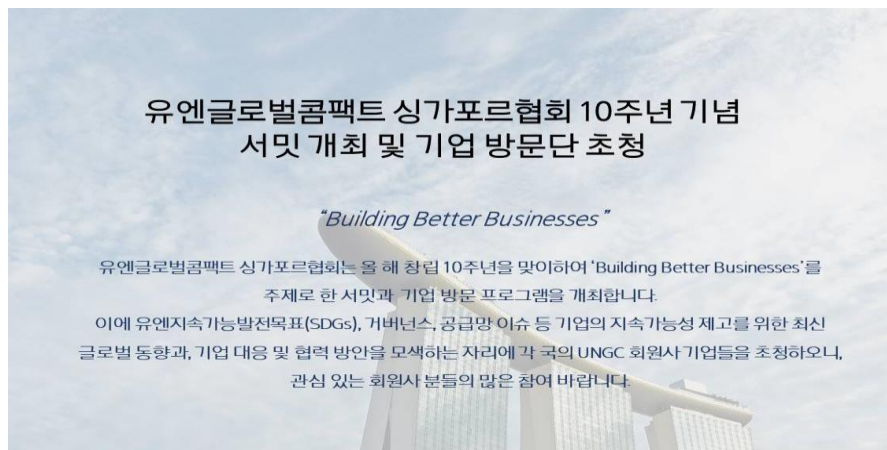
참가비: 만원, 10/7(일)까지 신청시 무료

[포스터 다운로드]

[초청장 다운로드]

[참가신청 바로가기]

4. 유엔글로벌콤팩트 싱가포르협회 10주년 기념 기업 방문단 초청 (11/19)



1. 유엔글로벌콤팩트 싱가포르협회 10주년 기념 서밋

행 사 개 요 일 시: 2018년 11월 19일 (월) 9:00 – 17:30
장 소: Suntec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Room Summit 2, Level 3
주 최: 유엔글로벌콤팩트 싱가포르협회
 ※ 기업 대표 선착순 5인 입장권 제공

프 로 그 램	시 간	프 로 그 램
	09:15 – 10:15	개회 행사 - 환영사: Goh Swee Chen, UNGC 싱가포르협회 회장 - 기조연설: Teo Chee Hean, 싱가포르 부총리 겸 국가안전담당차관 - 기조연설: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 귀빈과의 대담 - CDL-GCNS Young SDG Leaders Awards 상 발표
	10:15 – 10:45	커피 및 네트워킹
	10:45 – 12:00	"생동적·회복탄력적·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목표와 지역적 포부"에 관한 논의
	12:00 – 13:15	[분과 1] SDGs 이행하기 - 싱가포르 기업에의 SDGs 중요성 및 이행 방안 [분과 2] 기업 지배구조의 함정: 부패 없는 기업 생태계로의 안주 [분과 3] 산업 리드하기: 비즈니스 전략에 SDGs를 내재화하는 것이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이유
	13:15 – 14:15	오찬 및 네트워킹
	14:15 – 15:30	[분과 1]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과제 극복 [분과 2] 미래의 노동력 개발하기 - 미개발된 인력 활용 [분과 3] 지속가능경영 보고를 둘러싼 논쟁
	15:30 – 16:00	커피 및 네트워킹
	16:00 – 16:15	CDL-GCNS Young SDG Leaders Award 우승팀 발표
	16:15 – 17:30	평화롭고 번영하는 지역을 위한 지속가능한 가족 경영
	17:30	폐 회

※ 세부 프로그램 별첨

2. 갈라 디너 (Singapore Apex Corporate Sustainability Awards)

행 사 개 요 일 시: 2018년 11월 19일 (월) 18:30 – 21:30
장 소: Conrad Centennial Singapore Grand Ballroom, Level 2
 ※ 참가비 SGD 350/인

3. 기업 방문 프로그램

행 사 개 요 일 시: 2018년 11월 20일 (화) 09:00 – 14:30
장 소: TB C

신 청 방 법
 기관명, 성함, 직함, 이메일, 전화번호를 gckorea@globalcompact.kr 로 회신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김경민 과장
 Tel. 02-749-2149/21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초청장 다운로드\]](#)

[\[세부 프로그램 다운로드\]](#)

5. 인권경영 국제 연수(제네바·파리) 및 인권경영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 동향에 대한 이해 및 우리 기업의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한 『인권 경영 국제 연수 프로그램』의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한국인권학회가 주최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협력하는 본 프로그램은 연수생은 11월 26-28일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7회 유엔 기업과 인권 글로벌 포럼'에 참가하고, 파리에 위치한 OECD 한국대표부와 OECD 내 기업책임경영(RBC) 관계자를 만나 기업과 인권 정책 및 동향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갖습니다.

10월 26일(금)과 11월 16일(금) 연수생과 인권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 실무진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경영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이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프 로 그 램 개 요

[인권경영 국제 연수 - 제네바·파리]

- 일시 : 2018년 11월 24일(토) ~ 12월 1일(토) (7박8일)
- 장소 : 스위스 제네바 · 프랑스 파리
- 참가대상 : 인권경영에 관심 있는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 약 20-30명
- 주최/주관 : 한국인권학회 <https://www.kahrs2017.org/>
- 협력 기관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 참가비 : 550만원 (변동 가능) * 비행기표, 숙박비, 교육비 등 포함
- 신청기간 : 2018년 10월 10일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https://goo.gl/forms/W1ZsP2x2E4kNumLy2>
※ 링크가 열리지 않을 경우 참가자 이름, 기관(기업)명, 직책, 연락처를 gckorea@globalcompact.kr로 송부

[인권경영 교육 프로그램 및 OT]

- 일시 : 1차 10월 26일(금) 중강의실 / 2차 11월 16일(금) 대강의실
- 장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7 플립사이드
- 교육 참가비 : 5만원

문 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 gckorea@globalcompact.kr | www.unglobalcompact.kr



인권경영 교육 프로그램 – 서울

일시: 1차 2018.10.26 (금) 중강의실 / 2차 2018.11.16 (금) 대강의실

장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7 플립사이드

- **참석 대상:** 인권경영 국제 연수 참가자, 인권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 실무자 및 인권경영 교육/컨설팅 관계자
- **신청방법:** 온라인 등록 후 참가비 입금 (우리는행 1005-603-275192, 한국인권학회)

시간	프로그램 내용
1:30 - 2:00	등록
2:00 - 2:50	인권경영 개념 및 국내외 동향 - 이성훈 경희대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2:50 - 3:00	휴식
3:00 - 3:50	인권경영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우리 기업의 대응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
3:50 - 4:00	휴식
4:00 - 5:00	인권경영 매뉴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 이성훈 경희대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5:00 - 5:30	질의응답

인권경영 국제 연수 - 제네바·파리

2018. 11. 24 (토) ~ 12.1 (토)

구분	일시	장소	프로그램 내용
1일차	11월 24일 (토)	인천 - 제네바	- 인천 출발 - 제네바 도착
2일차	11월 25일 (일)	제네바	오리엔테이션
3일차	11월 26일 (월)	제네바	- 오리엔테이션 - 제7회 UN 기업과 인권 포럼 참석 -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방문 - 주 UN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방문
4일차	11월 27일 (화)	제네바	
5일차	11월 28일 (수)	제네바	
6일차	11월 29일 (목)	제네바 - 파리	파리로 이동
7일차	11월 30일 (금)	파리	- OECD 본부 방문 -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방문 - 민간기업 방문
8일차	12월 1일 (토)	파리 - 인천	- 파리 출발 - 인천 도착



[\[초청장 다운로드\]](#)

[\[참가신청 바로가기\]](#)

본부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옹호하는 10 명의 비즈니스 리더를 선정

2018 년 리더스 서밋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옹호하고 SDGs 를 선구하는 비즈니스 리더 10 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선정된 10 명의 SDG 선구자들은 50 개국 이상의 150 명이 넘는 후보 가운데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각 회사의 핵심 사업 전략에 대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 가지 원칙의 내재화, SDG 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지역 네트워크와의 활발한 협력이 포함되었습니다.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오늘 선정된 10 명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함으로써 기업이 세계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익을 어떻게 창출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선구적인 행동과 진보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을 창조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다른 이들을 참여시키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8 유엔글로벌콤팩트 SDGs 선구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Esther An,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City Developments Limited, Singapore
- Jean-Louis Chaussade, CEO, SUEZ, France

- Khalil Daoud, Chairman & Managing Director, LibanPost SAL, Lebanon
- Hanaa Helmy, CEO, EFG Hermes Foundation, Egypt
- Alice Laughier, CEO, Committed To Good, United Arab Emirates
- Emmanuel Lulin, Chief Ethics Officer, L'Oréal, France
- Danielle Pieroni, Chief Operating Officer, Foxtime Recursos Humanos, Brazil
- Teressa Szelest, President, Market & Business Development North America, BASF SE, Germany
- Martha Tilaar, Founder & President Commissioner, PT. Martina Berto Tbk, Martha Tilaar Group, Indonesia
- Greg Welsh, Director, Winya Indigenous Furniture, Australia

- [원문보기](#)

2. 비즈니스 리더들, 유엔사무총장과 함께 평화, 인권, 2030 아젠다 발전에 대해 논의

120 명 이상의 세계 주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국가 및 정부 수반들, 그리고 유엔과 시민사회의 대표자들이 함께 유엔 제 73 회 유엔 총회에서 2018 년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의 일환으로 현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 제 10 회 유엔 민간 부문 포럼의 리더스 서밋 고위급 오찬의 논의 주제였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주최한 이 포럼은 평화에 대한 건설과 투자라는 주제를 통해 넬슨 만델라의 유산을 기념했습니다.

개회사에서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 대 원칙을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있어 중요한 것은 회원사들이 가치 창출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가치로 인해 기업은 수익성이 있고 효과적인 기업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엔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예방과 평화 유지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대통령은 "평화, 안정성, 그리고 법치는 경제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업의 주주들이 지속 가능한 이익을 얻는 데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민간 부문은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평화를 회복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평화와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 사이의 중요한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리더스 서밋에는 120 명이상의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400 명에 가까운 기업 리더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30 아젠다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혁신적 변화의 원동력으로서 기업의 역할을 재조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서밋은 CEO 라운드테이블을 주최하고, 평등과 인권에 대한 기업 활동의 진보와 관련해서 솔직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규모와 업종 및 지역을 대표하는 31 명의 CEO 들은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성공적인 기업 활동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라운드테이블 환영사에서 유엔 사무차장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는.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 개혁하고 있으며, 유엔의 자산에 민간 부문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SDGs 의 달성은 힘든 여정이지만,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혜택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단계별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취임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미셸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는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이들에게 "2030 아젠다에 제시된 획기적인 비전을 실현하려면 기업 커뮤니티에 의존해야 합니다"라고 밝히며 "국제 사회, NGO, 개인, 지역사회, 기업간의 공동 행동에 대한 요구는 목표 그 자체만큼이나 급진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첼렛은 올해 세계인권선언 70 주년과 관련하여 "우리는 챔피언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인권 기반 조치를 실천할 비전과 용기가 있는 기업들이 필요하며 가장 작은 기업부터 가장 큰 글로벌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니레버 CEO 이자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 부의장인 폴 폴먼(Paul Polman) 은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권 문제는 사회와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SDG 목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것은 글로벌 목표(Global goal)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더스 서밋은 SDGs 를 위한 비즈니스 리더십에 초점을 맞춘 환영 조찬으로 시작했습니다.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국장은 2018 년 유엔 글로벌콤팩트 SDGs 이행 선구자(Pioneers)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SDGs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2030 아젠다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전세계 기업 리더들입니다. SDGs 이행 개척자들은 각자 자신의 기업을 통해 어떻게 글로벌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리세 킹고 사무총장은 글로벌 기업 리더들에게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동력은 당연히 개인의 리더십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아침 새로운 SDGs 선구자를 발표하면서 리더십 서밋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 분들은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세션은 진보를 촉진하고 영향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유엔 글로벌콤팩트의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10 대 원칙의 활용에 대한 논의에서 킹고 사무총장은 모든 부문의 비즈니스 전문가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학습 플랫폼으로, 최근 시행된 유엔 글로벌콤팩트 아카데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리더스 서밋 리셉션을 통해 리즈 킹고가 글로벌콤팩트 LEAD 기업으로 선정된 34 개 기업을 발표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2018 LEAD 기업

Accenture,	United States of America	Nestlé S.A.,	Switzerland
A.P. Moller - Maersk	Denmark	Novozymes,	Denmark
ARM	United Kingdom	Pernod Ricard,	France
BASF SE	Germany	Pirelli & C. S.p.A.	Italy
Bayer AG	Germany	PTT Global Chemical	Thailand
Braskem S.A.	Brazil	RELX Group plc,	United Kingdom
China Development Bank	China	Safaricom Limited,	Kenya
China Petroleum and Chemical Corporation – SINOPEC	China	Sakhalin Energy Investment Company Ltd.,	Russian Federation
Covestro Deutschland AG	Germany	Schneider Electric SE,	France
Daimler AG	Germany	SUEZ,	France
Danone	France	Sumitomo Chemical Company, Limited,	Japan
Enel S.p.A.	Italy	Total,	France

ENI S.p.A.	Italy	Unilever	United Kingdom
Fuji Xerox Company Ltd.	Japan	UPM-Kymmene Corporation	Finland
Iberdrola S.A.	Spain	Vale S.A.	Brazil
KT	Republic of Korea	Volvo Car Corporation	Sweden
L'Oreal	France	Inditex, Insustrias de Diseno Textil	Spain

[Lead 자격요건]

1.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회원사이며 10 대 원칙을 준수
2.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한 것과 10 대 원칙과 글로벌 목표에 따라 리더십 관행을 정의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최소 두 가지 행동 플랫폼에 참여
3. 영리 회원의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 이행을 위한 노력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매년 공개하는 보고서인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COP)를 매년 제출

이들은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장 활발히 참여한 것을 인정받았으며 발표된 34 개의 글로벌콤팩트 LEAD 기업들은 세계 모든 지역과 19 개 산업 부문을 대표합니다. 또한 10 대 원칙과 글로벌 목표에 따라 리더십 관행을 정의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최소 두 가지 행동 플랫폼에 참여하였고 Advanced COP 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리세 킹고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 부의장 볼라 아데솔라와 폴 폴먼과 함께 퇴임하는 부의장 마크 무디 스튜어드 경의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마크 무디 스튜어드 경은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설립된 2007 년부터 10 년간 이사회의 부의장으로서 자문역할을 해왔습니다. 마크 경은 글로벌콤팩트 재단 회장직을 통해 이사회 회원으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공동 주최한 유엔 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 리셉션은 지속 가능한 해양 기업 활동에 중점을 두고 이날의 성과를 돌아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0 유엔 오션 컨퍼런스에 앞서 열린 이날의 리셉션은 해양 아젠다 이행을 위한 기업들에 중요한 기회였고 노르웨이 총리 에르나 솔베르그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리즈 킹고는 또한 지속 가능한 해양 기업 활동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행동 플랫폼을 강조하면서 발언했습니다.



[-원문보기](#)

3. 유엔글로벌콤팩트,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괄적인 사회와 기업을 연계

유엔글로벌콤팩트가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을 촉진하는 SDG 16 번 목표의 발전에 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한 새로운 행동 플랫폼을 런칭했습니다.

제 73 차 유엔총회의 넬슨 만델라 평화회담 정기 세션 사이에 열린 이 플랫폼의 런칭은 베이커 맥킨지에서 주최했으며 약 100 명의 비즈니스 리더, 정부 공무원 및 시민사회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본 행동 플랫폼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 제공 및 모든 수준에서의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기관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결합하기 위해 비즈니스, 정부, 시민사회 및 유엔 기관들과 함께하는 2 개년 프로그램입니다.

새로운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 보고서(UN Global Compact Progress Report)는 SDG 16 번 목표가 가장 발전이 더디다고 분석했으며, 22%의 기업만이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은 기업과 사회의 성공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토대입니다. 즉, 이행 보고서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이러한 개념이 민간 부문 및 기업 전략, 운영 및 관계와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행동 플랫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동 플랫폼의 창립 후원자인 베이커 맥킨지의 글로벌 의장 폴 롤린슨(Paul Rawlinson)은 "우리는 빈곤, 불평등, 갈등 및 환경 파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에서는 비즈니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법치주의가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 대한 투자가 좋은 사업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일이라고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창립 후원자인 네슬레의 수석부사장 겸 그룹 법률고문인 리카르도 코르테스 몬로이(Ricardo Cortés-Monroy)는 "본 행동 플랫폼의 런칭은 목표 16 을 진행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데 결정적인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의 대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강력한 기반을 보장하는 열쇠입니다. 이는 2030 년 의제를 이행하게끔 만드는 근본적인 지원자이며 Nestlé 는 그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 행동 플랫폼은 지금부터 2020년까지 비즈니스 및 운영 국가 내에서 책임감, 성실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불러일으키는 대화를 위한 포럼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행동 플랫폼은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을 발전시키는 비즈니스 참여를 이해, 구현 및 보고하는 글로벌 표준을 제공하며 기업, 정부 및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지지, 의제 설정 및 책무를 요구하는 목표 16과 관련된 글로벌 트렌드를 탐구합니다.

본 행동 플랫폼은 다른 많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다루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행동 플랫폼 중 최근에 런칭되었습니다. [여기](#)전체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원문보기](#)

4. 유엔글로벌콤팩트 신규 발간물 소개

■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Progress Report 2018



2018 년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성과와 활동을 담은 '2018 UNGC 이행보고서(UN Global Compact Progress Report 2018)'가 발간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회원사들이 어떻게 UNGC 10 대 원칙을 이행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상당수가 SDGs 이행에 관해 CEO 및 고위 경영진의 지지를 얻고 있었으며, 임직원, 고객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업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 년 이행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소개합니다.

-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UNGC 10 대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및 관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68%의 응답자들이 자사의 최고경영자가 지속가능성 정책 및 전략들을 개발, 평가하는 데 참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임직원 수 5 만명 이상인 대기업의 약 86%가 계약 및 구매 주문서와 같은 외부 문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응답 기업의 상당수가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을 보고하고 있으나, 해당 활동의 임팩트에 대한 측정과 보고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기업의 55%가 연간 재무 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지표를 통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 응답자의 66%가 UNGC 참여를 통해 자사의 지속가능성 정책 및 활동을 촉진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업이 최우선시 하는 SDGs 목표 순위

- 목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69%)
- 목표 5: 양성평등 (64%)
- 목표 3: 건강과 복지 (62%)

- 원문보기

■ Building Peace and Prosperity: What Business Can Do (2018)



폭력과 갈등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지만 이와 관련된 경제적 영향은 종종 간과됩니다. 2016 년 한 연구에 따르면, 폭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구매력 평가 기준(Purchasing Power Parity, PPP) 약 14 조 3000 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세계 GDP 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민간부문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평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가 발간한 'Building Peace and Prosperity: What Business Can Do' 리플렛은 기업과 투자 공동체, 정부, UN 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분쟁 및 고위험지역의 평화 증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합니다. 이 밖에도 유엔글로벌콤팩트와 9 개 UN 기구가 참여하는 하는 8 개 다자 이해관계자 플랫폼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화 증진 관련 다자 이해관계자 플랫폼

- UNGC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행동 플랫폼
- UNGC Business for Peace (B4P) 이슈 플랫폼
- The Connecting Business Initiative (CBI)
- Generation Unlimited
- Innovation in Partnerships: Making A Business Case for Peace
- By supporting the principle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UDHR)
- UNGC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 20-20-20 파트너십

- [원문보기](#)

SDGs 소식

1. [Goal 7, 8, 11] 국내 SDGs 우수이행 사례 – LG 전자

LG 전자는 2012 년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SDGs 가 발표되기 전부터 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MDGs(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Life's Good with LG'라는 슬로건 아래 범 지구차원의 환경/빈곤/질병 분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에티오피아의 빈곤 극복을 위한 LG Hope Community Project, 케냐의 어린이 교육을 위한 LG Hope School 그리고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함께 질병퇴치를 위한 백신개발 등의 사회 기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UN 차원의 SDGs 선포를 계기로 기술과 역량 활용,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의 파트너십, 이해관계자 참여라는 3 대 전략과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드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SDGs) 달성에 기여'를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SDGs 는 세계 곳곳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LG 전자가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줄이며, 긍정적 영향을 늘려가는 데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에 LG 전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성이 높은 5 가지 SDGs 를 선정하였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 캠페인: 세계문화/자연유산 보호

LG 전자는 매년 6 월 5 일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춰 글로벌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 년의 경우 24 개국 41 개 글로벌 사업장의 4 천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세계문화유산 및 문화재 환경보호 활동을 주제로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문화재청과 함께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홍보영상을 상영하기도 하였습니다.





LG 소셜펀드: 친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지원

LG 전자는 LG 소셜펀드를 통해 친환경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LG 소셜펀드는 2011 년부터 LG 전자와 LG 화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우수한 사회적경제 주체를 선발하여 무상/무이자 금융지원, LG 전자노동조합의 생산성향상 컨설팅, LG 소셜캠퍼스를 통한 공간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세미나를 통한 경영지원과 네트워킹, 해외연수, 마케팅과 홍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LG 소셜펀드는 2017 년 3 월 기준 총 130 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였습니다.



반짝반짝 병원/도서관: 태양광발전 지원

LG 전자는 전력사정이 좋지 않아 정전이 잦은 파키스탄에서 지역보건센터 응급실에 정전 시에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 LG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여 '반짝반짝 병원'을 구축하고 무료 진료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도서관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파키스탄 뿐만 아니라 시리아의 병원 2 곳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역량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G 전자는 SDGs 달성에 보다 체계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세부목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연관성이 높은 5 개 목표를 중심으로 LG 전자의 비즈니스와 밀접한 목표를 우선하여 LG 전자만의 목표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전반의 과정에 UNGC, WBCSD, GRI 가 함께 개발한 SDGs Compass 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분들을 모시고 LG 전자의 비즈니스가 SDGs 분야에 미치는 영향, 우려사항과 기대사항을 듣기 위해 '17 년 이해관계자 자문회의는 'SDGs 달성을 위한 LG 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LG 전자는 앞으로도 SDGs 가 추구하는 가치를 경영활동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About these SDGs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11.4

세계 문화·자연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The Global Goals 

SDGs 세부목표 11.4는 **세계 문화·자연 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목표로 합니다.

1960년 이집트 누비아 유적의 수몰을 막기 위한 누비아 유적 보호운동을 계기로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 제17차 유네스코 총회(1972)에서 처음 채택되었습니다. 동 협약은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자연 유산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보고, 자연적 쇠퇴 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조건 변화에 의해 파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유산의 국제적 보호가 '국제사회 전체 의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 문화·자연 유산 보호를 위해 설립된 정부간 위원회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과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행동계획의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마련된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2012년-2022년 (2011)'은 지역 토착 문화의 보존을 통한 문화·자연 유산 보호가 현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세계 문화·자연 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추진합니다.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촉진한다.

The Global Goals 

SDGs 세부목표 8.3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지향 정책의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 정의 구현이 바탕이 될 때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목표 하에 정의롭지 못한 노동 환경을 바로잡고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ILO 발족 이후 개최된 국제노동회의(1998)에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권고사항을 채택하였고, 2002년에는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고용 창출 프로그램(IFP/SEED)을 발족시켰습니다. ILO에서는 중소기업(SMEs) 활성화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s)의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기업 프로그램을 2009년 발족하였습니다.

SDGs에서는 ILO의 설립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활동, 창의성과 혁신지원에 더불어 MSMEs의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 지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7.1

2030년까지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The Global Goals

SDGs 세부목표 7.1은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인간정주선언(1976)은 위생, 물 그리고 에너지와 같은 기초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않고는 개도국의 거주 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고 최초로 에너지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2000년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는 에너지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5년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공동 발간한 'MDGs 달성을 위한 에너지 서비스'는 8개 MDGs 달성에 현대적 에너지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유엔총회(2010)에서는 모든 이들이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고,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 청정 기술, 새로운 에너지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를 목표로 유엔 기구에서 노력을 다해야함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2011년 반기문 총장과 세계은행 김용 총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Sustainable Energy for All, SE4ALL)를 공동 발족하였습니다. 보편적 에너지 접근 보장, 신재생 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SE4ALL의 목표는 SDGs에도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 이미지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제작한 SDGs 키트에 포함된 디자인으로, 디자인 저작권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슬로워크에 있습니다.

- [원문보기](#)

2. [SDGs 시장기회] 난민을 위한 즉각적인 피난처 제공

강제이주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적절한 피난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난민 캠프는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도 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위생 및 기타 여러 기본 서비스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난민 캠프는 즉각적인 도시화의 한 형태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캠프에는 32 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현재 260 만 명이 넘는 난민이 전 세계 캠프에 거주하고 있으며 5 년 이상, 어떤 이들은 심지어 한 세대 이상에 걸쳐 이주된 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기에 상관없이 다른 도시와 동일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도 주의적 기관을 통해 기업들은 이렇게 빨리 형성되는 도시에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인도주의 공동체 및 난민에게 혜택을 주는 신흥 기회 분야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난민촌은 엄청난 양의 실행 계획을 수반합니다. 집을 떠나는 수천 명의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난민촌은 짧은 시간내에 만들어지고 제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위생, 식품, 식수, 의료, 연결성 및 교육 등 난민촌의 거주자들을 위해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도 즉시 배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3D 인쇄와 같은 고급 기술은 솔루션을 복제하고 그 지역에 맞춤화 할 수 있는 빠른 속도 때문에 점차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난민 캠프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또 다른 예는 사람들에게 행동 변화를 장려하거나 건강을 진단하기 위한 웨어러블 기술과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드론의 사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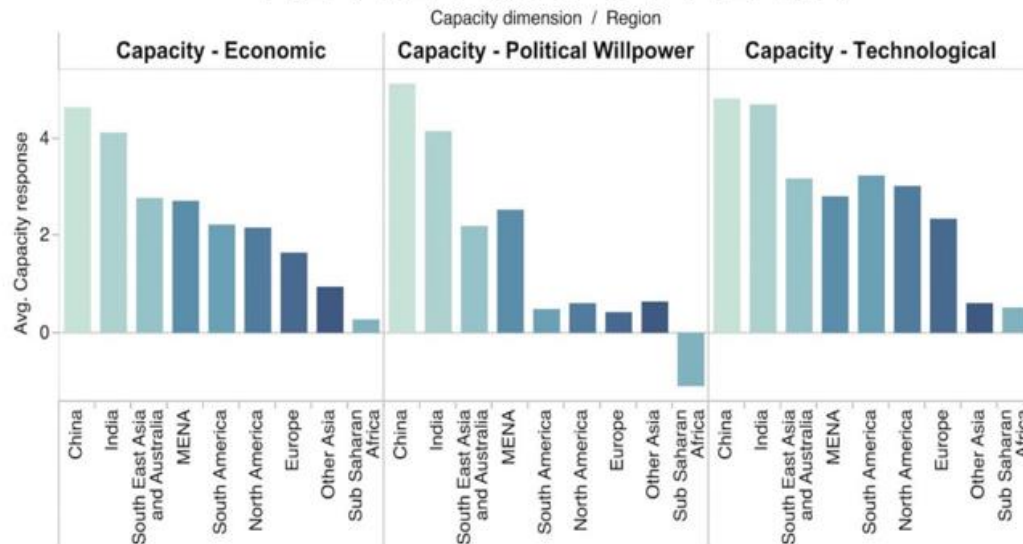
시장 사이즈와 수요동력

2015 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평균 24 명이 매 분마다 새로 이주했습니다. 갈등이 계속 격화되면서 실향민의 수와 그에 따른 요구는 둔화의 징후를 보이지 않습니다. 인도주의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 공급을 통해 개선된 생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직접 음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약 6 천 5 백만 명의 실향민과 캠프에 거주하는 3 백만 명의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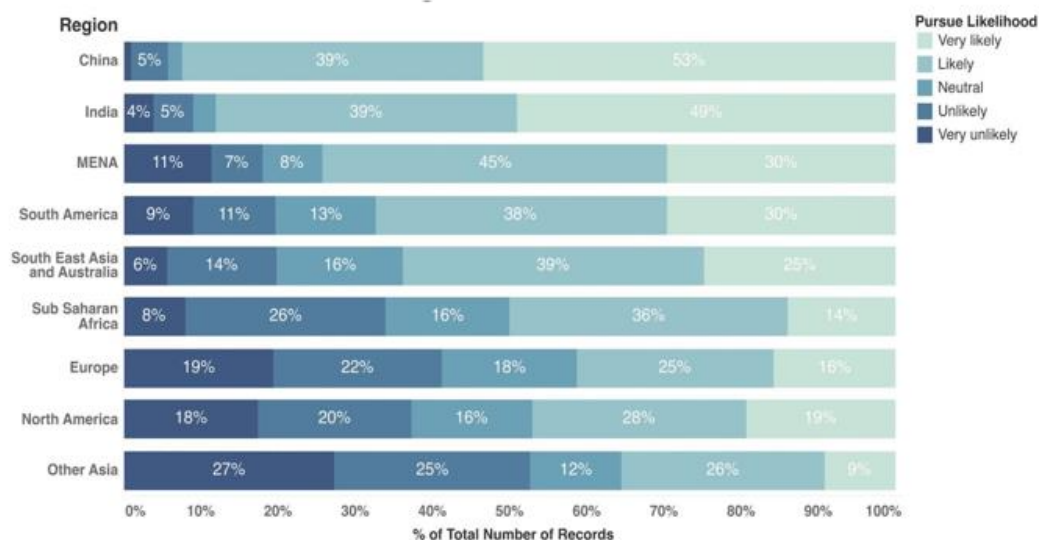
2015 년 글로벌 조사에 의하면 즉각적인 피난처는 MENA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이 시장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이었습니다.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즉각적인 피난처



이 기회분야가 설문 조사에서 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주된 이유는 지도자들이 현재 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기술 및 정치 등 3 가지 측면에서 2016 년에 조사된 15 개 시장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회사는 즉각적인 피난처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업 기회를 추구할 것인가?



이 시장 기회는 2016 년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5500 명 이상의 지도자들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연구 회사인 YouGov 와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Global Opportunity Report 2017 에 발표되었습니다.

[-원문보기](#)

3. [SDGs 솔루션] 난민을 위한 내구성 있는 임시 주택

Better Shelter 는 분쟁 및 자연 재해로 인해 집을 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혁신적이고 실용적이며 내구성이 강한 임시 주택을 제공합니다.

분쟁 및 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 쉼터, 음식 및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인도주의 캠프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캠프에서 적절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은 대개 텐트를 설치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단열 합판으로 된 경량 폴리머 패널로 구성되며 경량의 강철 프레임에 고정된 Better Shelter 는 전통적인 난민 텐트보다 내구성과 단열성이 뛰어납니다.

창문과 잠글 수 있는 문은 난민들에게 정상적인 집에 거주하는 느낌을 줍니다. 지붕 위의 태양 전지판은 램프와 휴대폰을 충전하기에 충분한 전기를 제공합니다. 보호소는 플랫팩 형식으로 만들어져 운송비를 줄이고 도구 없이 현장에 4 시간 내에 건설될 수 있습니다. 2015 년, Better Shelter 는 전세계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10,000 개 이상의 유닛을 제공했습니다.

요한 칼슨(Johan Karlsson) Better Shelter 공동 창립자는 “우리는 Better Shelter 를 계속 발전시키고 많은 난민들에게 혜택을 줄 다른 해결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혁신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라고 말합니다.

Why you should care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분쟁과 박해만으로 하루 평균 34,000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 천 5 백만 명이 넘는 강제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난민의 대다수는 제한된 인프라를 갖춘 개발도상국에서 보호되며, 이는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주택의 필요성을 증대시킵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Affordable and Clean Energy

에너지 접근성 보장

태양열을 충전하는 데 4 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지붕 보호소의 태양 전지판은 가족을 위해 램프와 전화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전기를 생성합니다.



Reduced Inequalities

불평등 완화

Better Shelter 는 17.5m² 의 안전하고 건강하며 내구성이 강한 공간을 제공하여 제한된 자원과 선택권을 가진 취약한 난민 가정을 위한 살기 좋은 주택을 만듭니다.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이 디자인은 안전한 집을 제공하기 위해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쉽게 운송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조립 가능합니다.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이 솔루션의 설계는 모듈 식이므로 해체, 이동 및 재조립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경우 보통 폐기되는 텐트와 달리 Better Shelter 텐트의 구성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Partnerships for the Goals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Better Shelter, UNHCR 및 IKEA Foundation 간의 파트너십은 상업적 통찰력과 전략적 자금 조달을 사용하여 글로벌 도전에 대한 기술적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About Better Shelter

Better Shelter 는 무력 충돌 및 자연 재해로 난민이 된 이들을 위한 혁신적인 주택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원문보기](#)

UNGC 회원 뉴스

1. KEB하나은행, 사회적 약자 위한 금융 지원... 책임 경영 앞장

KEB하나은행, 사회적 약자 위한 금융 지원... 책임 경영 앞장

입력 : 2018-09-26 17:34 | 수정 : 2018-09-26 19:22

“사회적 책임 경영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지난 3월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약속하며 한 말이다.



▲ KEB하나은행은 지난 12일 경기도 아천에 위치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아천훈련원'을 방문해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KEB하나은행 제공

- KEB하나은행은 서민금융 지원, 장애인 국가대표 후원 등의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음. 대표적 서민금융지원 상품인 '새희망홀씨', '사잇돌 중금리대출', '청년·대학생 햇살론', '안전망대출' 등을 통해 올해부터 매년 약 6000억원 규모로 2020년까지 1.7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임.
- 특히 낮은 가처분 소득으로 경제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 기준을 크게 완화함.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새희망홀씨 대출의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2%의 별도 금리 감면 항목을 만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임.
- KEB하나은행은 포용적 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상품인 'KEB하나 편한 대출'을 지난 5월에 선보였음.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또는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으로, 금융 접근성을 넓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음.
- [원문보기](#)

2. 우리 銀, 대구 신용보증재단과 중기 금융지원 협약 체결



지난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식에서 이창재 부행장(왼쪽)

과 이찬희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은행]

- 우리은행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하고, 중소기업에 재단 발급 보증서를 담보로 총 15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하였음.
-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대구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창재 우리은행 부행장과 이찬희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힘.
- 보증서 담보대출은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기간은 최대 5년이며 5년 동안 최대 연 0.3%포인트씩 총 1.5%포인트의 보증료가 우대됨. 여기에 대구신보 소상공인 통장을 추가로 이용하면 각종 은행수수료가 면제되며 대구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하면 대구시로부터 대출이자의 일부를 1년간 지원받을 수도 있음. 지원 대상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기준에 따라 우리은행이 추천한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이며 재단이나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됨.
-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전국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혁신벤처 기업 등의 성장을 돕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권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였음.

- [원문보기](#)

3. 두산, 사람에 대한 헌신과 지역사회 기여로 '더불어 사는 삶' 실천

두산, 사람에 대한 헌신과 지역사회 기여로 '더불어 사는 삶' 실천

조광현 기자 | 승인 2018.09.24 02:28 | 8면



2018 두산인 봉사의 날.

- 두산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의무'로 정의하고, '이웃과 더불어 삶'을 실천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음.
- 두산인 봉사의 날은 전 세계 두산 임직원이 '한날 동시에' 각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임. 지난 2014년 10월 처음 시작한 이후 여섯 번의 행사를 거치며 올해는 4월25일 미국, 중국, 영국, 인도, 사우디, 남아공 등 전 세계 19개국에서 70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쳤음.
- 한국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가구 만들기, 소외계층 방문, 지역 환경정화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미국에서는 지역 아동을 위한 기부와 방문봉사 활동을, 영국 등 유럽에서는 지역 커뮤니티 시설 개선과 장애인 시설 보수를, 인도와 베트남 등지에선 학교 및 복지시설 개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보수 활동 등을 진행하였음.
- 다양한 CSR 활동을 펼쳐온 공을 인정받아 (주)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인 '2017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주)두산과 두산중공업은 4년 연속, 두산인프라코어는 8년 연속 DJSI에 편입되며 해당 업종 상위에 올랐음.
- [원문보기](#)

CSR 뉴스

1. 리베이트, '횡령' 가능성 내포..."전사적 CP, 업계 대세"

- 최근 약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CSO, 매출 할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임. 아직 국내 규정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전문가들은 반부패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스며드는 형태의 기업문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전세계적으로 제약업계에 투명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때 국내 의약품 유통환경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됨.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은 독일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매우 강화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반부패 노력을 설명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글로벌 산업계 반부패 규제강화에 따라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요구되는 세계 시장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반부패 노력이 향후 해외 진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임.
- 이 실장은 "생각보다 ISO 37001을 잘 받지는 않고 있다. 세계 시장의 경우 꾸준한 반부패 정책과 절차, 체계를 기업 문화로 가져가려는 노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파트너로부터 발생하는 부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상당의 주의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 이어 "반부패를 막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문화를 생태계 안에서 투명하게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라고 덧붙임.
- 여기에 단순히 제약사를 처벌하기 보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나와 경제정의실천연합 신현호 변호사는 기업의 본래 목적인 이윤추구라는 의도에는 동의하지만 국내 의료 구조상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원문보기](#)

2. 삼일회계법인 "사회적 활동 우수하면 회계투명성도 높아"

삼일회계법인 "사회적 활동 우수하면 회계투명성도 높아"

김정호 기자 | map@newsis.com

등록 2018-09-20 16:57:43



-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기업은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할 목적으로 일회성 사회공헌활동을 벌이는 기업보다 회계투명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5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사회공헌활동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조직 가치와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최근의 회계 개혁,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 향상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하였다.
- 그는 "기업도 최근 시장 변화를 기회 삼아 정책과 목표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함.
- 이번 분석은 경실련 산하 경제정의연구소(KEJI)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 우수기업 200개사'를 참고하였다.
- [원문보기](#)

3. 중견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위해 CSR 강화해야

"중견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위해 CSR 강화해야"

홍일표 산자위 위원장 "근로자 권리 지키고 환경·인권 보호...현 정부도 강화 추세"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입력 : 2018.09.20 10:02

기사 소셜댓글(0) 기사공유



(앞줄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박인주 제니엘 회장, 정병기 계양정밀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장, 최재호 무학 회장,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대표이사,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대표이사, 김영철 바인그룹 대표이사, 이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진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중견기업 CEO 들과 만나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홍 위원장은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속가능 경영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연 조찬강연회에서 "현 정부 정책기조에도 CSR 을 강화하려는 흔적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하였음.
- 특히 중견중소기업이 지켜야 할 CSR 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환경·인권을 보호하며 윤리적으로 경영하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을 함
- 아울러 홍 위원장은 정부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종합대책을 제시하도록 한 산업발전법에 대해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꼬집었음. 그는 "종합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마련해 효과적인 종합시책을 제시하고 기업들을 돕도록 할 것"이라고 말함.
- [원문보기](#)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9 월 16 일부터 10 월 1 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 본부와 한국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2 곳 입니다.

- SK(주)
- 한국도자재단(재)

2. COP/COE 제출회원

9 월 16 일부터 10 월 1 일까지 7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리인터내셔널
- (주)대한항공
- 마콜 컨설팅 그룹
-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사)
- 한국석유공사
- 신용보증기금
- 현대모비스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한국협회에 동시 가입한 회원들은 한국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연회비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확산에 사용됩니다.

3. 2018 년 연회비 납부 안내

▪ 4/4 분기 연회비 납부 예정 기업 (납부 기한: 2018 년 12 월 28 일까지)

한국거래소, 경기테크노파크, 열매나눔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랜드, 대한산업안전협회, SK 이노베이션(주), 한전산업개발, (사)밀알심장재단, LG 전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주)두산, KT estate, (주)나인, (주)서스틴베스트, (사)한국해비타트, 한국주택금융공사, 교보생명, (주)우리은행, (주)아진트랜스

※ 청구서 재발행을 원하시면 협회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